

염중호와 관계 '있는/없는' 이야기,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글. 이대범

염중호는 자신이 기계가 아닌 '자신의 눈'이 사물(대상/사건)과 마주했던 순간을 기록했다.

염중호는 '무엇을 찍었다'보다는 '무엇을 보았다'에 치중한다. 염중호는 2007년 원앤제이갤러리에서 개인전 <새로운 경계>전을 개최했다.

염중호는 이 전시에서 서울, 파리, 암스테르담을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을 선보였다.

염중호는 관광하듯 자신의 일상을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어슬렁거리면서 소소한 일상의 사물(대상/사건)을 채집했다.

염중호는 비루한 일상에서 발견한 사물(대상/사물)의 소소한 이야기를 한다.

염중호는 대상에 내재된 문화적 혹은 공간적 특수성은 사진 외부로 밀어냈다.

염중호는 자신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물(대상/사건) 그 자체만을 프레임에 안착시켰다.

염중호는 <새로운 경계>에서 사진을 '숨겨' 놓았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 놓았다는 직접적 의미가 아니라, 전시 디스플레이 방식에서 표출된 은유적 표현이다. 작가가 일상에서 사물(대상/사건)을 발견했듯이 관객이 사진을 발견하도록 한다. 하얀 벽면을 마구잡이로 유명하듯 배치된, 그리고 하얀 벽면을 그대로 노출한 작은 사진을 보기 위해 관객은 '행동'을 해야 한다.

염중호는 2009년 원앤제이갤러리에서 의 관객과 동일시한다. 이전 전시에서는 관객이 구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염중호는 다른 작가들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도 그들의 작업에 개입하고자 한다.

염중호는 자신의 일상을 다른 작가의 비일상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다른 작가의 일상을 자신의 비일상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순환구조를 통해 타인의 처지(나아가 취향)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염중호는 나에게도 사진을 보냈고, 나는 그것을 컴퓨터 폴더에 옮겼다. 그리고 두 장의 사진을 선택했다. 아래 사진이 그것이다.

염중호는 나에게 취향을 물었고, 이 사진은 그에 대한 답변이다.

염중호는 나의 취향에서 무엇을 읽었을까? 이것은 염중호의 취향일까, 나의 취향일까.

염중호는 이 사물(대상/사건)에 왜 시선이 빼앗겼을까?

염중호는 나의 취향을 물었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염중호의 취향을 묻는다. 그의 취향과 나의 취향의 공통점은, 그리고 차이는 무엇일까? 이 사진은 염중호의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것인가.

나는 염중호가 보낸 데이터 파일을 나의 개인 사진 폴더에 넣었다는 사진을 발견했다. 나와 염중호의 게임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신의 취향을 들고 이 게임에 동참하길 바란다.